



즉시 배포용: 2023년 11월 17일

KATHY HOCHUL 주지사

## Hochul 주지사, 뉴욕 민주주의 강화 법안에 서명

### 수정안 및 투표 법안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법안 S.1381A/A.1722B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들이 제안된 헌법 개정안과 뉴욕주 투표 용지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제기되는 기타 질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제안된 수정안 및 기타 투표 법안은 유권자가 투표 요청을 받는 법안의 채택 또는 거부가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명확한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 세대에 걸쳐 미국인들이 투표권을 위해 싸워왔으며, 뉴욕은 투표함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뉴욕의 John R. Lewis 투표권법에 당당히 서명했으며, 뉴욕 주민들이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 투표할 때 정보를 얻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게 되어 기쁩니다."

법안 S.1381A/A.1722B는 제안된 헌법 수정안을 포함하여 주 전체 공개 투표에 제출되는 질문을 일반 언어로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모든 시민이 자신 있게 투표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투표 언어를 8학년 읽기 수준 이하로 작성하고 예 또는 아니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제안된 수정안이나 투표 용지에 있는 기타 질문을 조밀하고 복잡한 언어로 설명할 경우 유권자는 자신이 내려야 하는 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유권자는 이러한 질문에 전혀 투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실제로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투표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오늘 서명한 법안은 그러한 투표 법안에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표함에서 뉴욕 주민들이 자신있게 투표하고 지역사회와 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roy Comri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의 평이한 언어 투표안이 서명된 것을 보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투표 정책 조치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참되고 완전한 선거 참여가 법적으로 정통한 사람이나 영어에 가장 능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권리가 되도록 더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Stefani Zinerman** 의원에게 감사드리며,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Stefani Zinerma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 덕분에 일반 언어 법안이 투표권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용어를 단순화하여 투표하는 대중을 위한 평등을 창출하고 모든 뉴욕 시민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언어를 통해 경기장을 공평하게 만듭니다. 이 법안을 지지해 주신 **Common Cause**와 모든 문맹 퇴치 파트너들과 민주주의의 초석인 투표권을 보호해 주신 공동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http://ny.gov/signup) |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